

사설

합동징수 합의 이후

지난 10월14일 내부부의 초청형식으로 조계종과 문체부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3개월에 합의함으로써 문화재관리료와 공원입장료의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정부측의 분리징수에 맞서 '산문폐쇄'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이 당분간 해소된 셈이다. 정부와 불교계가 지혜롭게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발휘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의 종교문화정책이나 공원정책이 일방통행식의 행정편의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불교단체와 학계 등에 의해 불교종단의 재산관리 심지어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타율적인 간섭이 있어왔던 것이다.

또한 잘못된 문화정책으로 산보정재인 불교문화재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는 불교문화재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폐적 탁상행정·관료행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교계와 정부당국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있다.

첫째, 합의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번 이와 유사한 합의가 있어왔던 것을 종교경향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되면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으로 심각한 마찰을 보여왔고, 그때마다 '강경대응'이 유발되곤 하였다. 이와함께 정부당국과 불교계의 합의를 발표했지만, 중요한 사안에서는 그대로 이행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둘째, 합의사항중 두번째 항목인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에 명문화 한다'는 내

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받아들였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공원 안에는 대부분 오래된 전통사찰이 있고 삼보정재인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마음의 양식을 얻고, 세상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하여 전통사찰을 찾고 불교문화재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불교문화재는 또한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불태는 삼보정재이며 민족유산이지만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불교문화재의 포기를 요구한다든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함으로써 종교의 존엄성과 불교의 자주성이 말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제2항의 합의조항은 꼭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을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는 조계종을 비롯하여 불교계와 협의를 상설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던 문화재관리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 문화재관리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합의사항도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합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입장료·관리료인상의 합의가 안되면 또 분리징수의 편법이 등장해서는 안된다.

넷째, 불교계는 이번 기회에 불교재 산관리와 불교문화재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총무원등 중앙부처와 본말사 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산중공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연변에 북방거점사찰 추진

북돋기불교추진위 50평 연내 개원...北 식량지원등 역할 기대

대북식량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통일 후 북방포교를 준비하기 위한 거점사찰이 중국 연변에 마련될 전망이다.

북돋기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북돋기불교추진위원들이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임을 감안, 통일 이후 북방포교를 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연변시에 사무실 형식의 포교당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종교단체의 자국내 포교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중국 종교법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따르나 약 50평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 연내 개원할 예정이다. 또 스님과 재가자 각 1명씩을 파견한다는 목표아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북돋기추진위는 북

방포교에 대한 의욕과 함께 장기간 상주할 수 있는 포교사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돋기추진위 집행위원장 효림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은 "통일이 실현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중국 뿐이나 중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전문한 관계로 지난 1차 식량지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격조절 등 식량지원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해결을 통하여 북방포교를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복지타운 부지매입 '승인'

승가원이사회 새이사·감사등 선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15일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과 98년 신규사업 등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로 물망에 오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일대 19만7백49평을 매입키로 했다. 또 사업을 표명한 이사 법신스님과 10월말로 임기만료되는 감사 선진(도솔암 주지) 해장(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스님 대신 본각스님

(중앙승가대 사회학과 교수)과 원소스님(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를 새 이사와 감사에 각각 선임했다. 현각스님(성불원 원장), 김복희 이사는 유임됐다.

한편 이사회는 98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요양시설 '성락향', 그룹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등을 채택, 승인했다.

"국립공원관리 정부예산으로"

백양사, 10일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일 대웅전에서 '사찰환경수호 및 공원입장료 철폐를 위한 본·말사 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말사주지스님을 비롯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은 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내무부가 약속한 관광료 통합 징수 행정 지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며 "공원 관리소는 수익사업에 연연치 말고 설립 본연의 임무인 자연환경의 보호와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3개항 결의사항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사항은 삼문화재 보호법 적용받는 사찰과 일

야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하여 불교사찰을 보장하라 △공원관리비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라 △9월 22일 총무원장스님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등이다.

"경영정상화 길 찾자"

BBS 이사 간담회

불교방송 이사장직무대행 영담스님은 14일 재단이사간담회 직후 "10월말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11월초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사장 선임문제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하 설정 지하 흥과 설조 스님과 서문각 불교진흥원이사장 등 12명의 이사회원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음종 주지 연수
관음종(총무원장 효림)은 13~14일(1박2일) 대전 유성구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시암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는 중정 대천스님과 총무원장 효림스님을 비롯한 중안단부, 각 말사 주지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해 신엄사찰의 정보사찰에서의 중단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회는 '중지의 수행자의 지세'(총파스님) '승려의 생활지세'(해운·원로원장) '비교종교론'(법륜·종회의장) '포교와 사찰 운영론'(성철·보명사 주지) '대승불교와 관음신앙'(지하·조계종 중앙승가대 총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전국교사모임 논의

지역불자회 26일 회동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완숙)를 비롯해 부산 전주 청주지회 및 각지본말사 교사불자회 대표자들은 26일 광주·전

남교사불자회(회장 김진택)가 주최하는 청소년불자 합동수계 법회가 열리는 무각사에서 모임을 갖는다.

각 지역교사불자회 대표들은 이날 모인에서 내년초(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국대 학제개편 검토하자"

보광스님, '21세기 신교육 방향' 제시

동국대가 21세기 불교학 요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학제개편, 응용불교학, 포교사 양성, 불경전산화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동국대에서 '21세기 대학 신교육의 방향: 불교종교대학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동국대대학에 있어서 불교학의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은 "현재 동국대는 불교종교대학의 형식만이 남아있을 뿐 불교 관련 학과나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동국대가 본연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광스님은 "동국대는 '종합불교대학' (가칭)을 신설해 일반불교학·인도철학·선학 등의 일반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화엄학·법패·정토

불교관련 연구 위축 응용불교학 등 강화 전문학위 과정 필요

학박사 등의 전문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종래 석·박사 과정도 박사 전·후기로 나누어 지속적인 불학 연구공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제포교학전공'과 '선문화전공' 등도 신설해

외국의 언어·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원천인 선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포교사를 양성할 것도 제안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종교대학인 대정대학의 경우 불교학과를 '인간학부'로 바꾸는 등 불교학 학제개편을 단행한 결과 지난해 '인간학부' 지원 경쟁률이 '5대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보광스님은 "동국대는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며 "동국대 경영원이 한문경전뿐 아니라 경전의 영역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원의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현대불교 737-8881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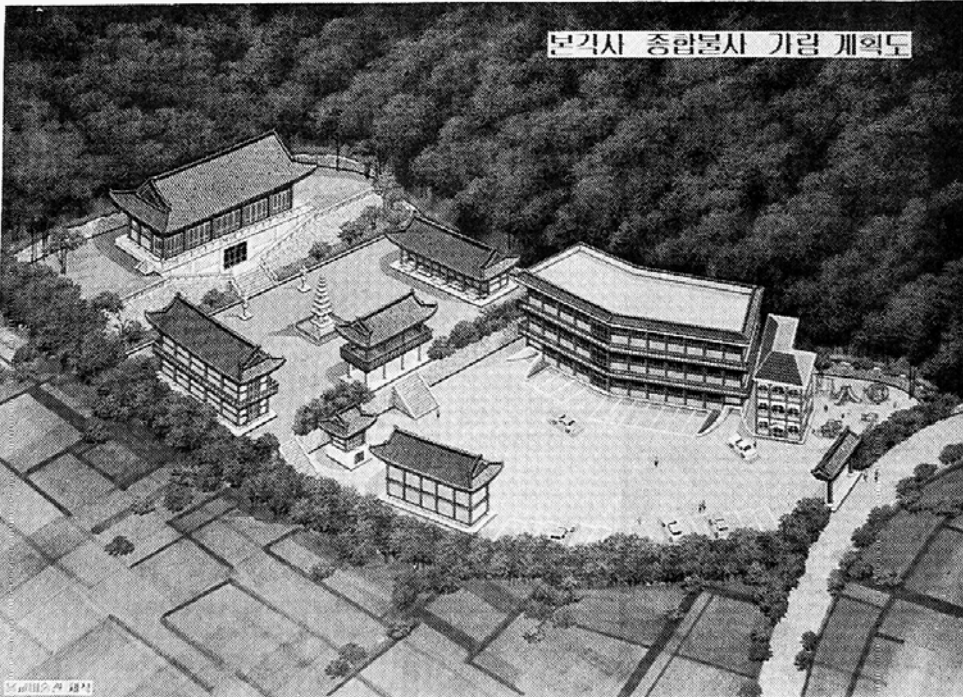


죽어서도 부처님결로

737-8881

지장기도도량 천왕산

본각사 대웅진 예술인 법당 상량식 안내



본각사 종합본사 가림 계획도

귀의 삼보하옵고,

천왕산 본각사 예술인 법당은 서울의 극제관문인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아름다운 시민공원과 목동신시가지 및 대규모 주택가를 포용하고 있어 포교의 요지임은 물론이요, 불자님들이 수행정진하기에도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름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이제 본각사 예술인 법당은 그 면모를 더욱 일신하여 만인의 귀의처가 됨은 물론 불자예술인들의 안심일명처로 거듭 태어나고자 대규모 중흥 불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의 대웅보전 예술인법당 대작불사는 물론 훌륭한 불교회관을 건립해 불자님들의 생활활동을 뒷받침하고 예술인들의 포교활동으로 만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삼존불과 사보살 오십삼존을 칠여래, 과거천불, 현재천불, 미래천불을 봉안할 웅장한 대웅보전 예술인 법당의 상량식을 그동안 법당건립을 위해 애써주시던 각 사찰 스님들과 재가 불자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선군 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동참하시는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불자연예인들의 장기자랑을 비롯한 위안잔치도 함께 할 계획이오니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10월 일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1년(1997)년 11월 11일(음력 10월 12일) 오전 11시
- 장 소 : 천왕산 본각사 예술인 법당
- 중 명 : 서암 큰스님
- 법 어 : 고불 큰스님
- 문 의 처 : ☎(02)649-7357, 647-2649(종무소) (02)655-0533~4(예술인 법당건립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산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산 본각사 주지(대봉)벽해 합장
대한불자 예술인법당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박규채 합장